'97 해외산업시찰을 마치고

- 체코편 -

글/감사과 이범진 차장

우리 일행은 오스트리아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버스편으로 마지막 시찰지인 체코로 향했다. 그동안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의 산업시찰과 관광을 마치고 체코로 향하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체코까지는 버스편으로 6시간이 소요되어 체코의 프라하(Praha)에 도착할 수 있었다.

체코로 가는 도중 오스트리아의 조그마한 시골마을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그 마을들은 잔디 축구장이 2개씩이나 갖추어져 있어 월드컵4회연속 진출한 국가로서 축구 전용구장 하나 제대로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우리가 이번 방문한 나라들 중에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축구 강국들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속해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체코도 이번에는 아쉽게 탈락했지만 '94 미국 월드컵에서는 8강까지 올라간 강국이다. 이 나라들의 주위 환경 및 여건들이 축구 강국으로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싶었다.

버스가 한참 달리고 있는 동안 우리 단원들은 피곤에 젖어 어느덧 오수를 즐기고 있었다.

첫째날

체코의 총면적은 78,864㎢ 이며, 인구는 11,035만명으로 프라하에 130여만명이 살고 있으며 남한의 약 1/3정도이다. 지리적으로는 중부 유럽에 속하며 100~1,600m의 산맥이 둘러싸인 보헤미아 분지와 모라비아로 나뉜다. 1세기에는 켈트족, 5세기에는 슬라브족, 8세기에는 모라비아 왕국이 들어 섰으며 10세기부터 보헤미아 왕국으로 번영했던 곳이다. 14세기에는 카를 4세가 신성로마 제국에 오를 정도로 국력이 신장되었으며 종교개혁의 전쟁에 휩싸여 16세기에는 합스부르크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19세기 후반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지배를 받다가, 제1차 세계대전후 체코슬로바키아로 통합되었다가 바로 나치 독일에 점령되었다. 이후 1945년 소련의 점령하에 사회주의로의 길을 걸었으며 1993년 1월1일 각각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할되었다. 체코는 공산권 국가였을 때도 동구권 국가중에서 잘사는 나라에 속해 경제수준이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공산주의에 항거해 1968년 '프라하의 봄'을 일구했으나 끝내 옛 소련의 억압에 굴복해야 했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의 중간이다. 가장 더울때는 7~8월이지만 습기가 적어 찌는 듯한 더위는 아니다고 한다. 가장 추운때는 1~2월로 영하 10도 이하인 경우도 많아 겨울에는 두터운 방한복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행 시즌은 초원의 꽃들이 활짝피는 4~5월, 단풍과 낙엽이 아름다운 9~10월이다. 시차는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8시간 차이가 나며 4~9월은 서머타임 실시로 7시간차이가 난다.

체코의 화폐단위는 코루나(Koruna) (영어명 Crown)로 KC 로 표기한다. 보조단위는 할레르 (Haler)이며 1KC=100Haler이다. 공식환율은 변동이 많지만 1997년 10월 현재 1US$ =26KC 이므로 1KC 는 약 31원이다.

프라하에서 환전은 공항이나 바츨라프 주요 관광지에 있는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약간의 환율차이가 있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다. 2일 정도 예정이라면 음식과 교통비, 택시비 등으로 70US$ 정도만 환전하면 된다. 고액을 환전했다가 다시 미화 등으로 환전하면 2중으로 수수료(2%)를 내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언어는 체코어, 관광지나 호텔, 고급레스토랑에서는 영어도 통하지만 지방이나 일반인들은 전혀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 외국어로는 모든 지역에서 독일어가 가장 잘 통한다. 종교는 카톨릭 신자가 70%이고 나머지는 개신교다.

우리가 버스로 이동하는 도중에 우리나라의 기아, 대우 자동차의 옥외광고가 눈에 띄어 우리나라도 국력이 많이 신장되었음을 실감하며 단지 중국음식점에 비해 아직 우리 나라 음식점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카를슈테인성(Karlstejn)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28km에 있으며 14세기 유명한 카를 4세가 세운 이 성은 험난한 지형을 살린 중세산성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황제의 궁전 Cisarsky Palac은 빼 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다. 특히, 고딕양식에 회화가 그려진 성모교회와 카를 자신의 예배당에 주목해 볼만하다.

또 2개의 탑을 연결하는 목조 복도도 독특했으며 안내원은 각실별로 관광객을 안내하면서 그때그때 잠금장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독특한 관리방법이었다. 개관은 8:00~18:00까지이며 월요일은 휴무이고 입장료는 120KC 이었다.

우리가 관광을 마치고 나왔을때는 2쌍의 신혼부부가 탄생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이곳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다.

테레진 수용소(Terezin's Small Fortress)

1940년 6월 14일 최초로 죄수가 수용되었는데 이때 총 죄수는 32,000명이고 여성을 위한 수용소는 5,000명이라고 한다. 이곳은 나치에 저항한 사람들을 수용했던 곳인데 총 34개의 실로 되어 있으며 그 크기는 그야말로 엄청났다. 무덤은 10,000기가 묻혀 있었다.

영화속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들을 현지에서 접하다보니 정말 실감이 났고, 그 때의 형상들이 살아 숨쉬는 듯 했다.

독방, 벽에 쓴 낙서, 가스실, 집단 목욕탕, 총살대…

나는 이 테레진 수용소가 정말 인상이 깊었다. 귀국후 비디오 숍에서 이와 관련있는 "쉰들러 리스트"를 빌려 보며 많은 생각을 가져 보았다.

둘째날

국립박물관(Vojenske Muzeum)

바츨라프광장 정면에 건축된 르네상스풍의 건물로 체코의 역사와 고고학, 화폐, 연극, 자연과학자료를 많이 전시해 놓고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체코의 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입장시에는 가방이나 짐 등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에 500원 정도를 내어 짐을 보관하는 곳이 있었다.

바츨라프 광장(Vaclavsk Nam)

지하철 A, C선 Muzeum역, 광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가늘고 긴 대로로 항상 사람들의 통행이 끊이질 않는다.

체코 건국의 아버지인 성 바츨라프의 동상이 볼거리였다. 1989년 민주개혁때 여기서 대규모의 데모가 일어났던 것은 기억이 새로웠다. 광장 한편에 '프라하의 봄'과 스탈린기의 영령을 추모하는 위령비가 세워져 있었다. 우리 일행은 이곳에서 국립박물관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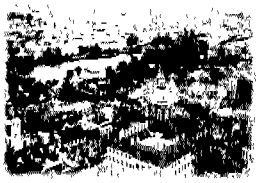
비슈흐라드(Vy Sehrad)

프라하의 '옛성이라는 뜻. 시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 블타바상 기슭의 바위산 꼭대기에 있다. 7세기의 궁전터라고 전하지만 지금은 공원으로 꾸며진 성터만 남아있고 체코 문화를 이끈 드보르자크, 스메타나 등의 유명 인사들의 묘지와 성페테르 바벨교회가 있다.

교회는 11세기에 만들어져 1902년에 재건한 비슈흐라드의 상징으로 내부의 14세기 작품 <비의 마돈나>가 유명하다. 비슈흐라드는 블타바 강을 사이에 두고 프라하 시가지와 프라하성이 엮어내는 웅장한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로 감탄이 절로 나왔다.

구시가 광장(Staromestske Nam)

구시가의 중심 광장가운데에는 중세 보헤미아 독립 운동의 투사인 얀 후스의 동상이 있고 거기에 새겨진 '진실은 승리한다'라는 문구가 강하게 마음에 와 닿는다. 약 900㎡의 광장에는 관광객이나 거리예술가 등으로 항상 붐비고 있었으며 주위에는 중세 모습을 그대로 한 주거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구시청사(Starome sta Radnice)

1338년 건조된 일찍이 프라하시 행정의 중심지이다.

중세의 번영을 연상시키는 대형 홀이 있고 70m의 탑에서 보이는 경관은 장관이다. 특히 외벽에 있는 1410년 작품인 시계탑과 매시 정각마다 시계위의 창문에서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열두제자와 암탉의 모습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시계는 천체의 회전과 4계의 이동변화를 나타낸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정각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열두제자 및 암탉을 보기 위하여 운집한 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지켜 보았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가운데 정각에 나타난 열두제자와 암탉이 나올때 많은 관광객은 탄성을 질렀다. 몇 백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셋째날

왕궁(Kralovsk Palac)

16세기 말까지 보헤미아 왕가의 거주지였던 곳. 중세 체코 정치의 중심이기도 하다.

중세유럽 최대의 홀인 브라티슬라브의 대형 홀도 인상적이었다. 또 수백년전 보헤미아를 통합했던 보헤미아 대법관정이 있었던 방도 인상에 남았다. 1618년에 여기에 2명의 관리가 창밖으로 내던져져 역사상 유명한 30년 전쟁이 시작되었던 곳이다.

또 보헤미아 회의가 개최된 광장에는 마리아 테레사를 비롯해 합스브르크가 사람들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었다.

유태인 거리(Josefov)

13세기 무렵부터 세계대전까지 프라하에 살았던 유태인의 대부분은 이 지역에 다른 사람들과는 격리되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이 지역은 유럽최대의 유태인 주거지로서 유명했으며 시나고그(유태인 교회) 등 유태인 사회를 알 수 있는 볼거리가 많았다.

칼레르 다리(Karluv Most)(일명 찰스다리)

블타바 강에 걸쳐져 있는 가장 유서 깊은 다리.

전체의 길이는 약 520m, 1353년부터 150년 이상에 걸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각도가 휘어져 보인다. 볼거리는 다리의 양쪽에 15개씩 늘어서 있는 체코 성인의 조각 보행자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도 볼거리가 되었다.

칼레르 다리를 관광한후 2시 20분에 점심식사를 했다. 점심식사후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는데 시내에서 공항까지는 약 40분정도 걸렸다. 공항(Praha)에 도착한 우리 단원들은 피곤에 지쳐있었고 빨리 서울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여기서 프랑스행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 도착후 다시 서울행 9시 20분발 대한항공을 타고 서울로 향했다.

우리 일행은 마침 '97 프랑스 오픈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낸 우리나라 남·녀 유도대표팀과 함께 탑승하였다. 그중 얼굴이 낯익은 전기영, 김현, 김재엽 등 여러 선수가 눈에 띄었다.

프랑스를 출발한지 약 10시간 10분정도 지나니 서울 상공에 들어왔다.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 7분. 김포공항에 무사히 귀국했다.

이렇게 8박 9일간(3개국)의 짧은 일정이었으나 필자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끝으로 이번 시찰단의 간사로서 단장님(회장님)을 모시고 전단원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협조속에 무사히 해외 산업시찰을 마칠 수 있었다. 표현력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회원 여러분과 전단원들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 해외산업시찰 참석자 (좌로부터)
전덕배, 이범진, 이학조, 강수찬, 권용득(단장), 이순형, 김종헌 (윗줄)
박택준, 이찬조, 현홍기, 권화영 (아랫줄)